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7월 19일(목)에 배포되었습니다.

성폭력 방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진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7월 19일(목)

보도 날짜 : 2012년 7월 19일(목)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자료문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김 혜 영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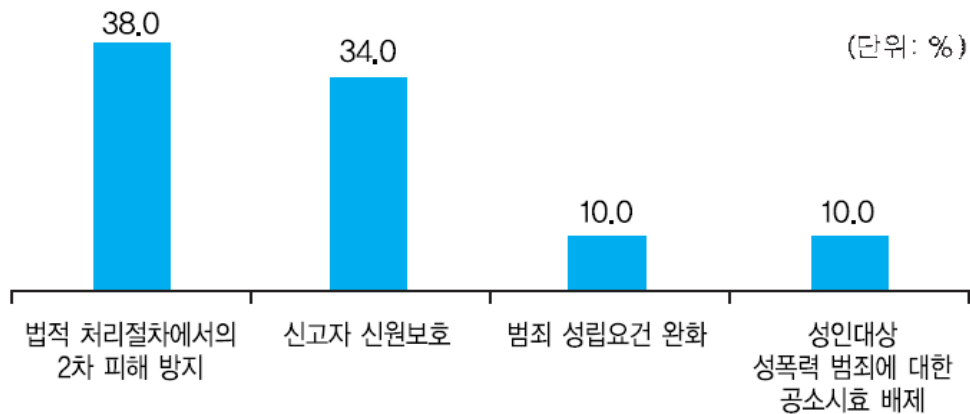
(연락처: 02-3156-7106, 이메일: flash89@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성폭력 범죄 및 방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개하고 추진방향을 간략히 제시한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주일간, 학자 및 연구자, 여성단체 관계자, 공무원, 유관단체 등 총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에 나타난 주요결과는 아래와 같다.

성폭력 범죄 신고율 높이려면 '법적 처리절차에서의 2차 피해방지' 조치 필요

- ☐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법적 처리절차에서의 2차 피해방지'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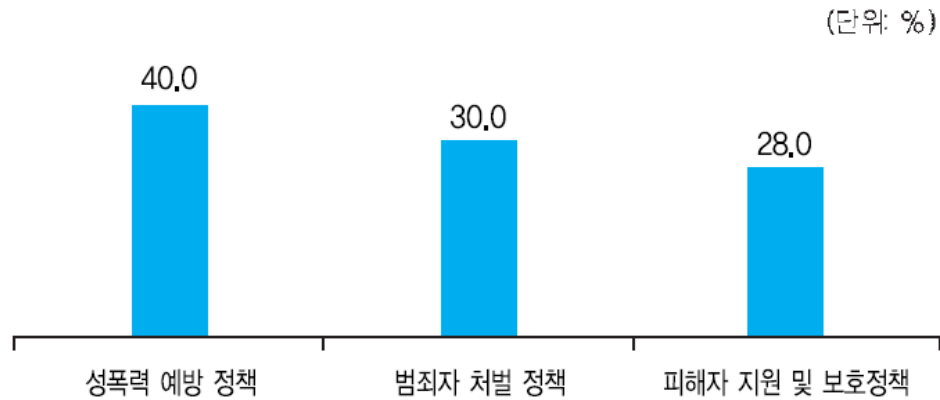
- 그 다음으로는 '신고자 신원 보호' 34.0%, '범죄 성립요건 완화' 10.0%,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성폭력 범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성폭력 방지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성폭력 예방정책'

- 성폭력 방지 정책 중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은 '성폭력 예방정책'이 40.0%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는 '범죄자 처벌 정책' 30.0%,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 2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볼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정책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2. 성폭력 방지 정책 중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표 1. 응답자 유형별 성폭력 방지 정책 중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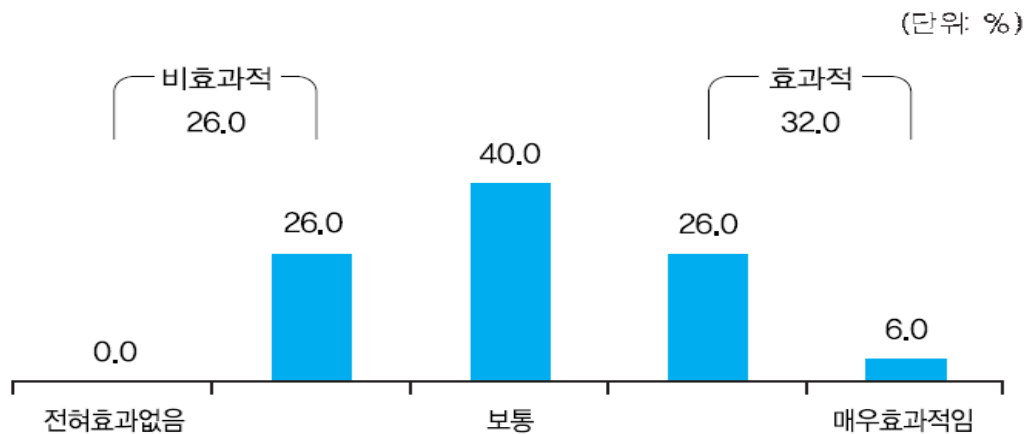
	시례수	성폭력 예방 정책	범죄자 처벌 정책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	그때 그때 다르다
전체	50 (100.0)	20 (40.0)	15 (30.0)	14 (28.0)	1 (2.0)
학자/연구자	13 (100.0)	6 (46.2)	3 (23.1)	3 (23.1)	1 (7.7)
여성단체	10 (100.0)	5 (50.0)	3 (30.0)	2 (20.0)	0 (0.0)
공무원	10 (100.0)	4 (40.0)	3 (30.0)	3 (30.0)	0 (0.0)
유관단체	17 (100.0)	5 (29.4)	6 (35.3)	6 (35.3)	0 (0.0)

주 : 괄호안은 비율(%)임.

성폭력 방지 정책 효과성, 정책마다 평가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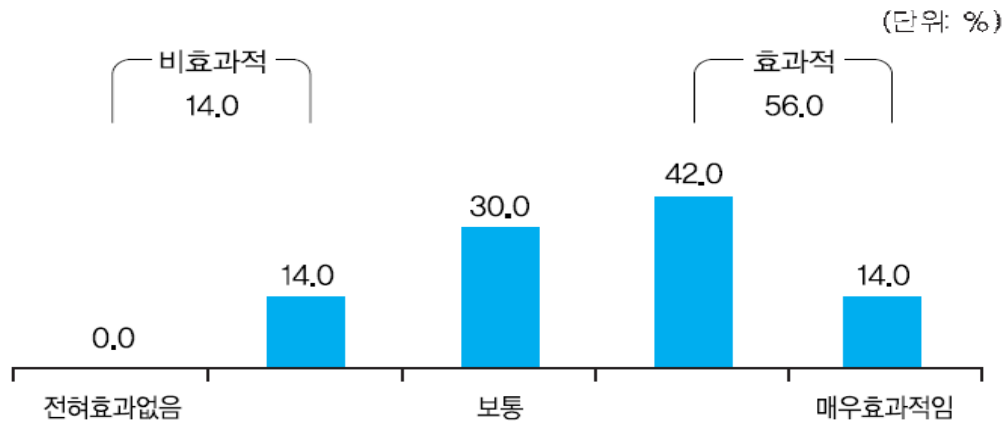
□ 예방정책 부문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서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32.0%(매우 효과적 6.0% + 효과적 26.0%),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26.0%(효과없음 26.0%)로 긍정적인 응답률이 다소 높음.



<그림 3.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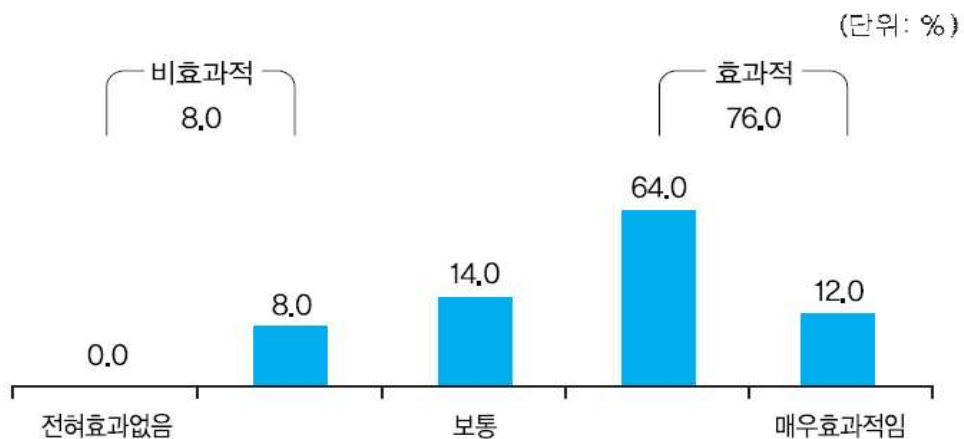
-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긍정적 응답률이 56.0%(매우 효과적 14.0% + 효과적인 편 42.0%)임.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14.0%로 대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폭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그림 4. 성폭력 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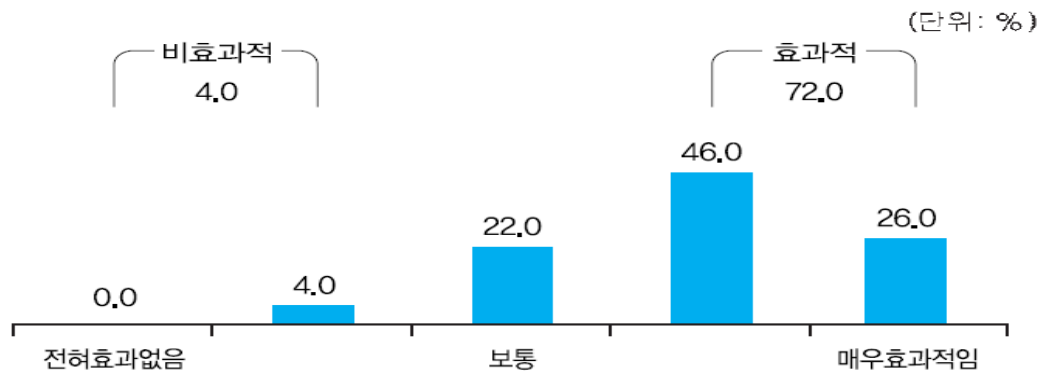
□ 피해자 지원 및 보호정책 부문

-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및 지원체계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이 76.0%(매우 효과적 12.0% + 효과적 64.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8.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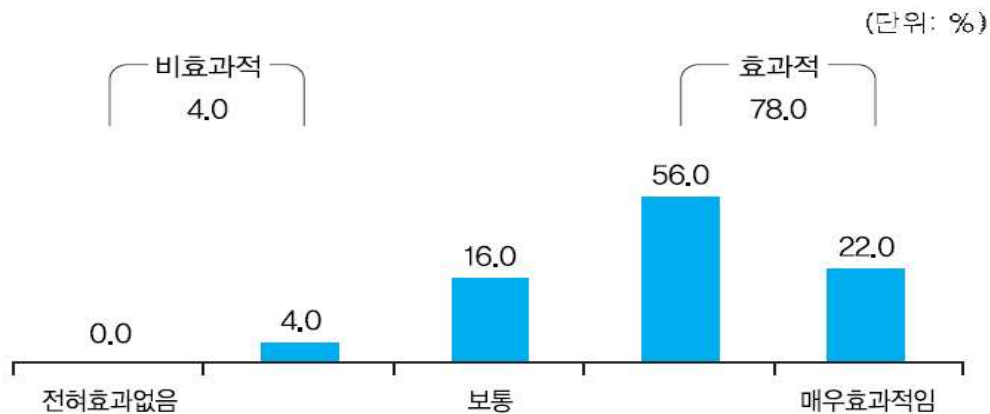
<그림 5.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 및 지원체계>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률이 72.0%(매우 효과적 26.0% + 효과적 46.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4.0%임.



<그림 6.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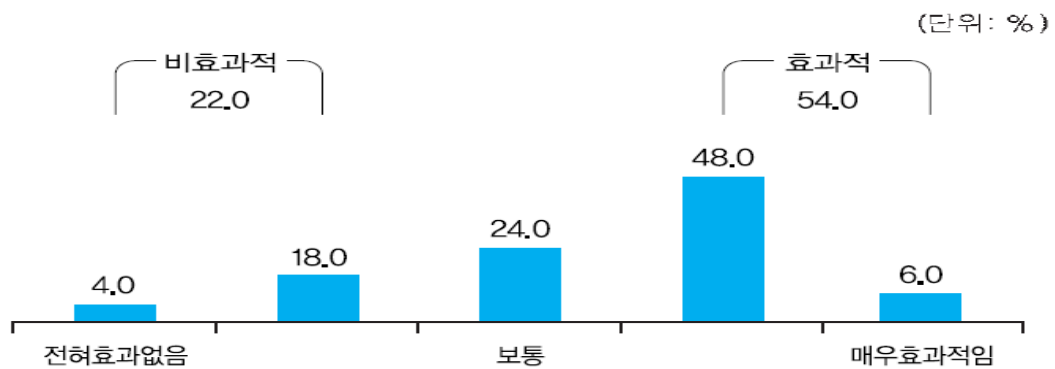
-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률이 78.0%(매우 효과적 22.0% + 효과적 56.0%)로 나타남.



<그림 7.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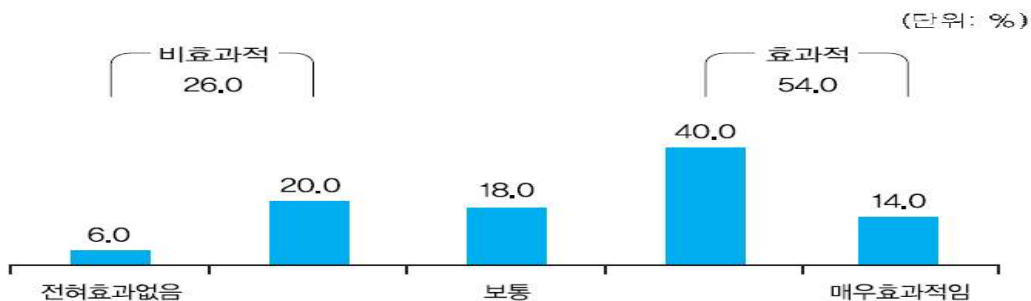
□ 가해자 처벌 정책 부문

- 전자발찌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률은 54.0%(매우 효과적 6.0% + 효과적 48.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22.0%(전혀 효과없음 4.0% + 비효과적 18.0%)로 앞서 살펴본 여타 정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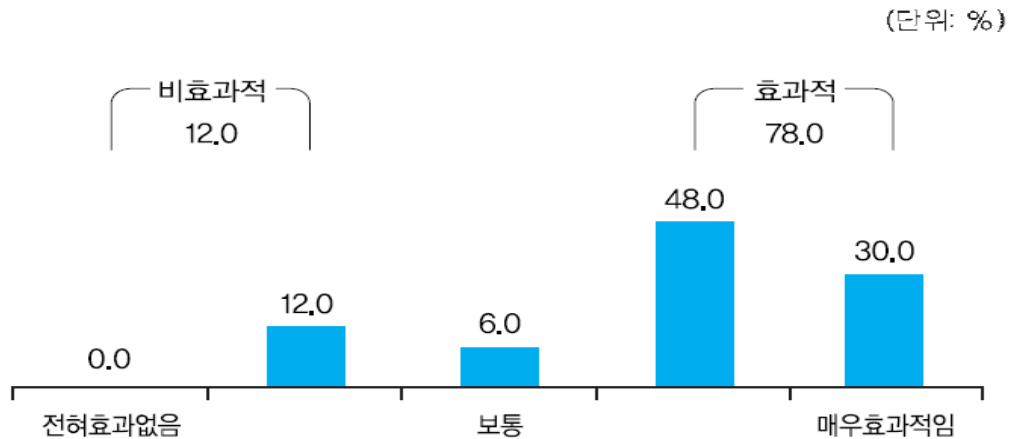
<그림 8. 전자발찌 제도>

- 화학적 거세제도의 경우 긍정적 응답률이 54.0%(매우 효과적 14.0% + 효과적 40.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이 26.0%(전혀 효과없음 6.0% + 비효과적 20.0%)로 나타남.



<그림 8. 화학적 거세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경우 긍정적 응답률이 78.0%(매우 효과적 30.0% + 효과적 48.0%)로 나타남. 비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12.0%임.



<그림 9.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